

## 초등학생 대상 성교육 효과 분석 연구

서순희\* · 이무식\*\* · 나백주\*\* · 강문영\*\* · 홍지영\*\*†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보건교육전공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Effects of Sexuality Education in On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on-Hee Seo\* · Moo Sik Lee\*\* · Beag Ju Na\*\* · Mun Young Kang\*\* · Jee Young Hong\*\*†

\*Department of Education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sexualit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in regard to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role identity about sex.

**Methods:** We classified students in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and carries out the planned sexuality education to the experimental group. Study subjects were 200 students in one elementary school. Experimental group compromised of 50 boys and 50 girls, and control group so di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from 15th to 16th, October in 2009. The post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the control group 5 weeks later, and to the experimental group for 5 weeks (total 10 hours, 2hours each a week) after the sexuality education from 23th of November to 25th of November, 2009.

**Results:** Experimental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post-inspection scores of sex-related knowledge, attitude against sex, sex-related role identity (excluding leadership·dominance, concession, cheerfulness·gentleness and sympathy·shyness) than pre-inspection scores. Conversely, control group had insignificantly higher post-inspection scores (excluding all scores of sex-related knowledge and scores of attitude against sex including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pregnancy).

**Conclusions:** Our study suggested that sexualit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have an impact on forming knowledge, attitude, and role identity regarding the sex.

**Key words:** Elementary school, Experimental study, Sexuality education

---

접수일: 2012년 11월 1일, 수정일: 2012년 12월 21일, 채택일: 2012년 12월 24일  
† 교신저자: 홍지영 (302-718 대전광역시 서구 원앙마을 1길 28)  
Tel: 042-600-6407, Fax: 042-600-6401, E-mail: prvhong@konyang.ac.kr

## I. 서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식생활이 개선되고, 생활양식이 변화됨으로서 아동의 성장발달이 가속화되었으며, 청소년들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도 초등학교 3·4학년으로 낮춰졌다(김유미, 2010). 여아의 신체성장발달 속도는 7.5세에서 시작하여 12세 정도에 급성장을 시작하고 남아는 13세에 시작한다(오진아, 2008).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2차 성징에 다른 신체적 변화 뿐만 아니라 사춘기 시작과 초경 또는 몽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양한 성 심리의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어 초등학생에 있어서 성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박은례, 2004)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지식과 성인문화는 주로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학령기 아동들에게 노출되고 있어(한상숙과 국미경, 2004), 왜곡된 성지식으로 인한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바르게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중·고생 3,000명 대상 조사결과 이성간 인터넷 채팅을 경험한 학생은 99.7%였고 이 중 1회 이상 만나본 학생은 약 55%로 나타나(김상원, 2009), 초등학생의 실제 성경험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의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는 10대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왜곡된 성정체감은 성인으로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Caputo 등, 1999; 남미애, 2002).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순간적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다른 아동과의 사회생활을 통하여 성역할의 동일시가 확고해지며 자신감,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은 성에 대한 건전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성 건강과 건전한 성 행동을 촉진시키는 초석이

된다(정민자 및 송현정, 2000). 성교육을 가장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고, 최초로 아동들이 접하는 곳이 초등학교라는 점에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이주애, 2006). 이러한 동기에서 교육인적자원부(2001)는 2001년부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5단계로 나누어 교사용 성교육 지도지침서 및 성희롱,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CD를 개발·배포하였으며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성교육이 전체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시간이 배정되고 학교장의 재량권과 학교 여건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교과운영시간에 성교육 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효과 또한 미미하였다(김소미, 2008).

성교육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CD-ROM,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플래시, 인터넷 검색도구, 비디오 자료 등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하고 있다. 성교육은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교육 내용일지라도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어야만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박경선, 2002). 성교육에 있어 시청각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은 한참 변화의 시기에 있는 성장기 아동들이 성에 대해 부끄러움과 쑥스러움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성에 대한 의문과 경험을 토의 발표하며, 성 역할극, 시범, 성관련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참여 활동하는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 보이는 성에 대한 쑥스러움, 부끄러움, 거부감이 덜 나타나 건전한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해 가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성 문제와

관련한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문제중심 학습을 적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그 효과를 알아보려고 시행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및 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J초등학교 5학년 6개 학급을 대상으로 성교육 시행 수업반 학생(실험군) 100명, 미시행 수업반 학생(대조군) 100명이다.

사전조사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성교육 시작 전 2009년 10월 15일에서 10월16일까지 자기기입식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성교육은 실험군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총 5주간 10시간을 진행하였다. 사후조사는 성교육이 모두 완료된 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2009년 11월 23일-25일간 사전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 2. 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성교육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주간 시행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소중한 성 바로 알기'(교육인적자원부,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2008)와 '함께 풀어나가는 성이야기'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 고학년용(교육인적자원부, 2001)을 근간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 3. 측정 도구

성 지식 및 성 태도 측정도구는 기존 연구(김순화, 2009; 국미경, 2004; 이관순, 2004; 이인실, 2004;

민명선, 2004)의 측정 도구를 재구성하였다. 성 지식의 측정도구는 정답 1점, 오답과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정답을 맞힌 문항 수를 총점으로 총점이 높을 수록 성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성 태도 측정도구는 성에 대한 강한 긍정적 태도는 4점, 강한 부정적 태도는 1점으로 처리하여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0.81였다.

성 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는 강홍점(2002)이 성 역할검사지(Bem Sex Role Inventory)를 우리나라 학생의 연령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한 것을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2개의 하위 영역을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하위 영역별로 각각 20개의 문항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0.63-0.94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기준은 0.05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조사대상자의 성관련 특성 및 신체 변화는 카이제곱검정을 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사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 지식과 성 태도 및 성 역할 정체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시행하였다. 실험군 및 대조군간 성 지식과 성 태도 및 성 역할 정체감 사전·사후 검사는 t-검정, 짝지은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실험군 및 대조군간 성별, 부모 유무, 형제 자매 유무 및 집 분위기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실험군 및 대조군간 성 관련 특성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음란물 경험률이 실험군의 4%, 대조군의 20%로 유의하게 차이가 낮지만( $p=0.001$ ), 가정 성교육 경험률과 성 관련 정보원(부모, 담임선생, 보건교사, 친구, 형제자매, 서적류, 영상매체) 보유 비율은 유의한 분포의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실험군 및 대조군간 신체변화 특성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월경을 실험군 12.0% 및 대조군 28.0%에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분포 차이를 보였지만( $p=0.046$ ), 가슴 변화, 몽정, 발모, 여드름, 변성기 및 신체변화의 경험률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실험군 및 대조군간 성교육 관련 점수의 분포를 보면, 성교육 필요성, 관심, 신기함, 불안감, 부끄러움 및 혐오감 모두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계	실험군	대조군	단위: 명(%)
				p-값
성별				1.000
남	100(50.0)	50(50.0)	50(50.0)	
여	100(50.0)	50(50.0)	50(50.0)	
부모 유무				0.602
유	184(92.0)	91(91.0)	93(93.0)	
무	16( 8.0)	9( 9.0)	7( 7.0)	
형제자매 유무				0.825
유	177(88.5)	89(89.0)	88(88.0)	
무	23(11.5)	11(11.0)	12(12.0)	
집 분위기				0.573
엄하다	7( 3.5)	3( 3.0)	4( 4.0)	
자유스럽다	120(60.0)	57(57.0)	63(63.0)	
보통이다	73(36.5)	40(40.0)	33(33.0)	

\*  $p<0.05$ ,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lt;표 2&gt; 조사 대상자의 성 관련 특성

				단위: 명(%)
변 수	계	실험군	대조군	p-값
가정 성교육 경험 유무				0.141
유	72(36.0)	41(41.0)	31(31.0)	
무	128(64.0)	59(59.0)	69(69.0)	
음란물 경험 유무				0.001*
유	24(12.0)	4( 4.0)	20(20.0)	
무	176(88.0)	96(96.0)	80(80.0)	
성관련 정보원				1.000
부모님				
유	78(39.0)	39(39.0)	39(39.0)	
무	122(61.0)	61(61.0)	61(61.0)	
담임선생님				0.469
유	19( 9.5)	11(11.0)	8( 8.0)	
무	181(90.5)	89(89.0)	92(92.0)	
보건선생님				0.831
유	175(87.5)	88(88.0)	87(87.0)	
무	25(12.5)	12(12.0)	13(13.0)	
친구				0.152
유	13( 6.5)	4( 4.0)	9( 9.0)	
무	187(93.5)	96(96.0)	91(91.0)	
형제자매				0.194
유	10( 5.0)	7( 7.0)	3( 3.0)	
무	190(95.0)	93(93.0)	97(97.0)	
서적류				0.179
유	46(23.0)	19(19.0)	27(27.0)	
무	154(77.0)	81(81.0)	73(73.0)	
영상매체				0.733
유	9(45.0)	4( 4.0)	5( 5.0)	
무	191(95.5)	96(96.0)	95(95.0)	

\* p&lt;005,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lt;표 3&gt; 실험군 및 대조군의 신체변화 정도의 비교

				단위: 명(%)
변수	계	실험군	대조군	p-값*
월경†				
유	20(20.0)	6(12.0)	14(28.0)	0.046*
무	80(80.0)	44(88.0)	36(72.0)	
가슴변화†				
유	84(84.0)	39(78.0)	45(90.0)	0.102
무	16(16.0)	11(22.0)	5(10.0)	
몽정 †‡				
유	4( 4.0)	2( 4.0)	2( 4.0)	1.000
무	96(96.0)	48(96.0)	48(96.0)	
발모				
유	28(14.0)	10(10.0)	18(18.0)	0.103
무	172(86.0)	90(90.0)	82(82.0)	
여드름				
유	60(30.0)	27(27.0)	33(33.0)	0.355
무	140(70.0)	73(73.0)	67(67.0)	
변성기				
유	15( 7.5)	8( 8.0)	7( 7.0)	0.788
무	185(92.5)	92(92.0)	93(93.0)	
신체변화				
유	112(56.0)	55(55.0)	57(57.0)	0.776
무	88(44.0)	45(45.0)	43(43.0)	

\* p&lt;005,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lt;표 4&gt; 실험군 및 대조군 간 성교육 관련 점수의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수	실험군	대조군	p-값	
성교육 필요성	3.72±0.81	3.70±0.82	0.862	
관심	3.07±0.83	3.15±0.81	0.491	
신기함	3.15±0.80	3.00±0.84	0.197	
불안감	2.87±0.86	2.97±0.85	0.408	
부끄러움	3.04±0.92	2.88±0.94	0.224	
협오감	3.72±0.75	3.64±0.85	0.481	

\* p&lt;005, t-검정에 의함

성지식 점수의 사전·사후 조사 결과간 차이와 실험군 및 대조군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전·사후 조사 결과간 차이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신체발달(실험군  $p=0.001$ , 대조군  $p=0.001$ ), 심리발달(실험군  $p=0.001$ , 대조군  $p=0.044$ ), 임신과 출산(실험군  $p=0.001$ , 대조군  $p=0.047$ ), 성윤리·양서평등(실험군  $p=0.001$ , 대조군:  $p=0.001$ ) 및 성폭력(실험군  $p=0.001$ , 대조군  $p=0.013$ ) 등 모든 조사항목에서 유의하였으며, 실험군의 사전·사후 점수

의 차이가 대조군보다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실험군과 대조군간 차이는 사전조사 결과의 경우 신체적 발달( $p=0.011$ )만 대조군이 유의하게 더 높으며, 사후조사 결과의 경우 신체적 발달( $p=0.001$ ), 심리발달( $p=0.001$ ), 임신과 출산( $p=0.001$ ), 성윤리·양서평등( $p=0.001$ ) 및 성폭력( $p=0.001$ ) 등 모든 조사항목에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5> 실험군 및 대조군 간 성지식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집단별 평균치의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 수	전·후 검사	실험군	대조군	p-값
신체발달	사전	1.66±1.30	2.17±1.50	0.011*
	사후	3.90±0.73	2.76±1.63	0.001*
	p-값	0.001**	0.001**	
심리발달	사전	2.56±1.29	2.54±1.31	0.914
	사후	3.88±0.54	2.76±1.40	0.001*
	p-값	0.001**	0.044**	
임신과 출산	사전	2.19±1.41	2.60±1.60	0.056
	사후	4.57±0.89	2.83±1.58	0.001*
	p-값	0.001**	0.047**	
성윤리·양서평등	사전	1.26±0.98	1.26±0.98	1.000
	사후	2.18±0.58	1.58±1.06	0.001*
	p-값	0.001**	0.002**	
성폭력	사전	1.78±0.87	1.56±0.78	0.062
	사후	2.16±0.47	1.78±0.69	0.001*
	p-값	0.001**	0.013**	

\*  $p<0.05$ , t-검정에 의함

\*\*  $p<0.05$ , 짝진 t-검정에 의함

성태도 점수의 사전·사후 조사 결과간 차이와 실험군 및 대조군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전·사후 조사 결과간 차이는 실험군의 경우 모두 신체발달( $p=0.001$ ), 심리발달( $p=0.001$ ), 임신과 출산( $p=0.001$ ), 성윤리·양서평등( $p=0.001$ ) 및 성폭력( $p=0.001$ ) 등 모든 조사항목에서 사후조사 점수가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대조군의 경우 심리발달( $p=0.024$ ), 성윤리·양서평등( $p=0.019$ )에서만

사후조사 점수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실험군과 대조군간 차이는 사전조사 결과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후조사 결과의 경우 성폭력을 제외하고 신체적 발달( $p=0.011$ ), 신체적 발달( $p=0.001$ ), 심리발달( $p=0.001$ ), 임신과 출산( $p=0.001$ ), 성윤리·양서평등( $p=0.010$ )에서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6> 실험군 및 대조군 간 성태도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집단별 평균치 비교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수	전·후 검사	실험군	대조군	p-값
신체발달	사전	2.86±0.43	2.91±0.40	0.341
	사후	3.13±0.31	2.92±0.46	0.001*
	p-값	0.001**	0.759	
심리발달	사전	3.15±0.47	3.23±0.52	0.254
	사후	3.73±0.32	3.32±0.52	0.001*
	p-값	0.001**	0.024**	
임신과 출산	사전	3.53±0.37	3.56±0.41	0.493
	사후	3.77±0.28	3.60±0.40	0.001*
	p-값	0.001**	0.400	
성윤리·양서평등	사전	2.84±0.28	2.85±0.39	0.899
	사후	3.07±0.31	2.93±0.41	0.010*
	p-값	0.001**	0.019**	
성폭력	사전	3.12±0.35	3.20±0.32	0.077
	사후	3.25±0.28	3.20±0.32	0.318
	p-값	0.003**	0.892	

\*  $p<0.05$ , t-검정에 의함

\*\*  $p<0.05$ , 짝진 t-검정에 의함

남성성향의 성역할 정체감 점수의 사전·사후 조사 결과간 차이와 실험군 및 대조군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전·사후조사 결과간 차이는 대조군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실험군의 경우 지도성/지배성을 제외하고 독립심/단호함( $p=0.007$ ), 자부심( $p=0.002$ ), 공격성( $p=0.047$ ), 모험심( $p=0.001$ ), 강인함/신뢰감

( $p=0.001$ )에서는 모두 사후조사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사전조사 점수의 경우 모든 조사항목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반면 사후조사 점수의 경우 독립심/단호함( $p=0.041$ ), 자부심( $p=0.025$ )에서만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7> 실험군 및 대조군 간 성역할 정체감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집단별 평균치 비교(남성성향)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 수	전·후 검사	실험군	대조군	p-값
남성성향				
독립심/단호함	사전	3.53±0.49	3.53±0.58	1.000
	사후	3.67±0.53	3.51±0.57	0.041*
	p-값	0.007**	0.693	
자부심	사전	3.28±0.58	3.24±0.64	0.644
	사후	3.48±0.69	3.26±0.69	0.025*
	p-값	0.002**	0.730	
공격성	사전	3.11±0.73	3.07±0.76	0.755
	사후	3.24±0.80	3.18±0.79	0.595
	p-값	0.047**	0.050	
지도성/지배성	사전	3.02±0.67	3.03±0.68	0.917
	사후	3.11±0.81	3.01±0.79	0.388
	p-값	0.179	0.762	
모험심	사전	3.24±0.74	3.30±0.76	0.594
	사후	3.55±0.70	3.33±0.74	0.388
	p-값	0.001**	0.591	
강인함/신뢰감	사전	3.29±0.69	3.34±0.79	0.603
	사후	3.53±0.70	3.33±0.86	0.065
	p-값	0.001**	0.842	

변 수	전·후 검사	실험군	대조군	p-값
남성성향 계	사전	3.24±0.44	3.25±0.50	0.904
	사후	3.43±0.47	3.27±0.54	0.027*
	p-값	0.001**	0.561	

\* p<0.05, t-검정에 의한  
 \*\* p<0.05, 짝진 t-검정에 의한

여성성향의 성역할 정체감 점수의 사전·사후 조사 결과간 차이와 실험군 및 대조군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사전·사후조사 결과간 차이는 대조군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실험군의 경우 부드러움(p=0.015), 이해심(p=0.001), 섬세함/따뜻함(p=0.001), 아이 좋아함(p=0.002)에서 모두 사후조사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사전조사 점수의 경우 모든 조사항목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반면 사후조사 점수의 경우 섬세함/따뜻함(p=0.009), 아이 좋아함(p=0.022), 동정심/수줍음(p=0.013)에서만 실험군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8> 실험군 및 대조군간 성역할 정체감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집단별 평균치 비교(여성성향)  
 단위: 평균±표준편차

변 수	전·후 검사	실험군	대조군	p-값
여성성향				
	양보심			
	사전	2.81±0.73	2.95±0.73	0.193
	사후	2.87±0.74	2.93±0.76	0.606
	p-값	0.485	0.776	
명량함/상냥함	사전	3.26±0.55	3.31±0.80	0.559
	사후	3.30±0.67	3.21±0.67	0.377
	p-값	0.487	0.143	
부드러움	사전	3.01±0.73	2.97±0.82	0.683
	사후	3.19±0.86	2.99±0.80	0.101
	p-값	0.015**	0.626	
이해심	사전	3.50±0.72	3.61±0.74	0.289
	사후	3.78±0.77	3.57±0.81	0.054
	p-값	0.001**	0.539	

변 수	전·후 검사	실험군	대조군	p-값
섬세함/따뜻함	사전	3.05±0.61	3.06±0.70	0.915
	사후	3.35±0.71	3.08±0.73	0.009*
	p-값	0.001**	0.777	
아이 좋아함	사전	3.64±1.11	3.63±1.07	0.948
	사후	3.92±1.02	3.56±1.17	0.022*
	p-값	0.002**	0.509	
동정심/수줍음	사전	3.40±0.73	3.28±0.73	0.228
	사후	3.40±0.70	3.17±0.62	0.013*
	p-값	1.000	0.260	
여성성향 계	사전	3.24±0.49	3.26±0.58	0.804
	사후	3.40±0.50	3.21±0.57	0.015*
	p-값	0.001**	0.240	

\* p&lt;0.05, t-검정에 의함

\*\* p&lt;0.05, 짝진 t-검정에 의함

#### IV. 논의

이 연구는 일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성 지식, 성 태도 및 성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일개 초등학교의 5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전-사후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 집단에서 성지식 점수의 유의한 증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5주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시행된 점을 감안하였을 때 단기간 성교육으로도 성지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65명의 감정적 장애를 가지거나 육체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12주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Bloom, 1969)와 성적으로 발달한 10대를 대상

으로 시행한 성 관련 정보제공 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Reichelt와 Werley, 1975)의 연구와는 연구설계는 다르지만 임신과 출산 등 전반적인 성 관련 지식 수준을 높였다는 결과와 일정 수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국미경(2004)의 연구에서는 ICT와 비디오를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집단에서 성 지식 점수가 향상된 점은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대조군의 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정연계 성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김수화(2009)의 연구에서 실험군의 점수가교육 후 향상된 결과는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서울특별시 소재 일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간 시행한 성교육의 효과를 본 강희경(1992)의 연구에서 교육 후 성 지식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는 결과와도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비디오 교재, 실물화상기, 토론, 학습지 등을 이용한 성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하영희(2001)의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난다는 결과는 이 연구에서 성교육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연구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교육 후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성 태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군의 경우 교육전보다 교육 후 성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5주간 시행된 단기간 성교육으로도 성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Kirby(1985)는 성교육이 성지식 수준은 높힐 수 있지만 성에 대한 가치 및 태도, 실제 성행태와 10대 임신 등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건강행태 실천에 있어서 지식이 행태에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간 성교육이 장기적으로 성태도를 변화시킨다고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국내 다른 연구(국미경, 2004; 김순화, 2009; 강희경, 1992; 하영희, 2001; 민명선, 2004)에서도 성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태도가 단기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성교육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민명선(2004)의 연구에서는 활동 중심 성교육의 효과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성교육을 시행한 실험군에서 남성성향 및 여성성향의 성역할 정체감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교육 후 실험군과 대조군간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5주간 이루어진 성교육이 성역할 정체감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앞서 Kirby(1985)가 지적하였듯이 성교육이 성역할 정체감에 직접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과와 일정 수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11-19세의 135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Iverson(1973)의 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연구(김해옥, 2005; 민명선, 2004; 변명숙과 성옥련, 2000)에서는 성교육이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나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 지식, 태도,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충청북도 제천시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선정하고, 조사하여 대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같은 학교 5학년을 실험군, 대조군으로 임의로 표집하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실험군을 교육하는 5주 동안 대조군이 통제가 되지 않아 같은 학교에서 서로의 정보교환이 있을 수 있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설문에 의존하여 성 지식, 태도, 역할 정체감의 변화를 추정하기에 솔직한 답변을 주었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넷째, 이론강의로만 성교육이 이루어져 ICT, 비디오, 토론, 상담 등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다른 유형의 성교육과 비교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 교육을 가정과 연계하여 교육 대상을 학부모와 아동으로 대상자를 보다 다양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 V. 결론

인간에게 성은 생물학적 의미 뿐 아니라 그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정서적 실체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적 여건의 향상,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태도도 변화되고 있으며 개개인에 대한 식생활의 개선과 영양상태의 향상은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도를 점점 빠르게 변화시켰다.

본 연구는 성교육이 학생들의 성 지식, 태도,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집단을 나누어 실험군에게 의도적인 성교육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 향후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실험연구로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향상과 성 태도 형성, 성 역할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변화 유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의 체계화된 성교육은 학생들의 성 지식, 태도, 성 역할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성교육을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며, 어색해 하던 아이들이 문제중심 학습을 적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체험, 실습, 역할극, 토의 등의 활동적인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활동하여 긍정적인 '밝은 성(性)'으로 변화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성교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건전한 성, 건강한 성을 함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발달 단계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홍점.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성 지식 및 성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화성: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2. 교육인적자원부. 함께 풀어나가는 성 이야기(초등학교(4~6)). 서울: 선명인쇄주식회사, 2001.
3. 국미경. ICT를 활용한 성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4. 김상원. 성교육/성상담 이론과 실제(6판), 서울: 교육출판사, 2009.
5. 김소미. ICT 활용 성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인식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6. 김순화. 가정연계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성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7. 김유미.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8. 김해옥. 성교육 집단 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9. 남미애.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2002;21(2):127-151.
10. 민명선. 활동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성 태도 및 성 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1. 박경선. 교수매체 유형에 따른 성교육의 효과 분석[석사학위논문]. 인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12. 박은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교육 실태와 요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북: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13. 변명숙, 성옥련.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특성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2000;5(1):61-71.
14. 오진아. 후기 학령기 아동의 이성숙도, 성지식과 성태도. 아동간호학회지 2008;14(3):305-314.
15. 이관순.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성 관련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6. 이인실. 성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춘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17. 이주애. 초등학생의 정의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청주: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18. 정민자, 송현정.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생활과학논문집 2000;1(2):133-161.

19. 하영희.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강릉: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20. 한상숙, 국미경. ICT를 활용한 성교육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4;21(3):87-100.
21. Bloom, J. L.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presenting a sex education course to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been removed from the regular classroom situation because of severe emotional or physical problems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68). Diss. Abstr. Int. 1969;30A:483A-484A.
22. Caputo, AA, Frick PJ, Brodsky SL. Family violence and juvenile sex offending: Potential mediating roles of psychopathic traits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women. *Cri Jus Beh* 1999;26:338-356.
23. Iverson, S. R. Sex education and adolescent attitud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1973). Diss. Abstr. Int. 1973;34A:7584A-7585A (University Microfilms NO. 74-13,181).
24. Kirdy D. Sexuality education: a more realistic view of its effects. *J Sch Health*. 1985;55(10):421-424.
25. Reichelt, P. A., and Werley, H. H. A sex information program for sexually active teenagers. *J. Sch. Health* 1975;45:100-107.